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Vol.15

국제안전도시 '세종'



CONTENTS

국제안전도시란 무엇인가?

- SAFETY CHECK 01

안전그래픽으로 보는 세종 국제안전도시 현황

- SAFETY GRAPHIC 06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어떻게 진행될까요?

- SAFETY TIP 12

안전한 도시를 위한 세종시의 발걸음

- SAFETY MANUAL 02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이인환 과장

- SAFETY INTERVIEW 01 08

안전을 위한 세종시의 고민

- SAFETY THINK 04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조직위원회 조준필 위원장

- SAFETY INTERVIEW 02 10

안전한 도시를 위한 세종시의 디딤돌 '국제안전도시' 인증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은 과거에는 주로 대도시의 노후지역·우범지대의 범죄예방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전반에 걸쳐 범죄,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생활안전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 참여와 협력을 적극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출범 이후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도시 건설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로 인해 세종시의 손상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013년 72.8명에서 2020년 30.5명으로 전국 시·도 대비 최저수치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도시의 안전성 제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도시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제고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의 지속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어 안전에 관심이 많은 각 도시에서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정책수단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입니다. 국제안전도시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회 사고와 손상 예방 세계학술대회'의 안전도시 선언에 기초하여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8년 1월 31일 국제안전도시를 인증받아 선포하였습니다. 다만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는다는 것은 그 도시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진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기>의 열다섯 번째 이야기, '국제안전도시'편은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5년 주기의 2023년 재인증을 위해 노력하는 세종시의 모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계가 안전으로 행복해지고 국제안전도시들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는 국제안전도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안전도시란?

국제안전도시는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회 사고와 손상 예방 세계학술대회'의 안전도시(Safe Community) 선언을 기초로, 안전교육과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제적인 안전 인프라를 공고히 하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 여건을 만들어 전세계 안전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의의

국제안전도시(International Safe Communities)란 “주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고와 손상, 폭력, 자살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도시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 내 구성원과 사회가 완전히 안전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도시임을 뜻합니다.

모든 인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All human beings have an equal right to health and safety

국제안전도시 헌장 Manifesto for Safe Communities 1989년 9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 -ISCCC-

-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의과대학 사회의학과
- WHO 지역사회안전증진센터(1989~2014)
-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nternational 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re 2015~현재)

안전도시 평가기준 -손상-

- 손상(Injury)은 고전적 의미에서 인간의 한계 역치를 초과하는 정도로 신체에 미치는 기계적 힘, 열, 전기, 화학 및 방사선과 같은 물리적 요인에 급성 노출되어 야기되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 대부분의 손상은 기계적 힘(교통사고, 낙상, 운동, 총기사고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나, 익수나 동상과 같은 손상은 산소나 열 등 필수적인 요인의 급격한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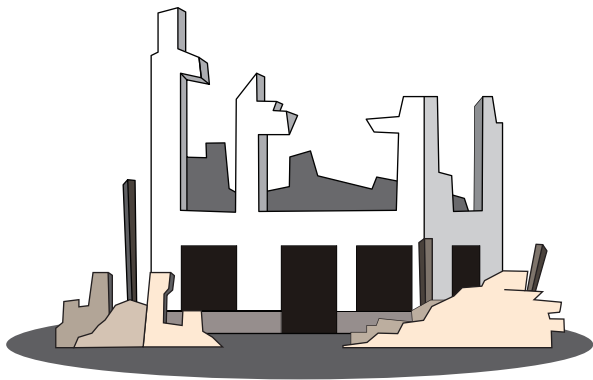
국제안전도시와 UNDRR

인증기관	ISCCC(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	UNDRR(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
인증 명칭	국제안전도시	복원력 허브(Resilience Hub)
인증 의미	손상 예방과 지역의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	재난 위험 경감에서 모범이 되고 재난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헌신을 약속한 도시
인증기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각계각층의 지속 가능한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마련 사회적 역량 강화 • 손상감시체계: 손상예방 사업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 및 확산 위한 감시체계 운영 • 포괄성: 모든 성별, 연령, 환경 등을 포함하는 손상예방, 안전증진 프로젝트 수행 • 취약계층: 취약집단, 고위험 계층 및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수행 • 평가: 안전도시사업, 진행과정, 효과, 개선 상황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절차 존재 • 네트워킹: 국내 및 국외의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 	<p>※ MCR2030 가입 필요(선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코어카드 10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복구 조직 구성 • 현재 미래 위험 시나리오 식별, 이해 및 사용 • 복원력을 위한 재정역량 강화 • 복원력이 강한 도시개발 • 자연 완충재 보호 • MCR2030 전략평가 • MCR2030 복원력 로드맵 C등급 • 복원력 허브로서의 3년 이상 활동 세부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 복원력 강화 • 효과적인 재난 대응 • 신속한 복원과 재건 • 기관 역량 강화 • 사회적 역량 강화
유효 기간	5년(5년마다 점검 후 재인증)	3년(3년마다 점검 후 연장)
인증도시 (국내)	세계 33개국, 430여개 도시 (24개 광역4, 기초15, 준비중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CR2030: 43개국 558개 도시 • 복원력 허브: 세계 6개 도시(인천 포함)

안전한 도시를 위한 세종시의 발걸음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와 이로 인한 손상은 개인의 인적, 물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에 세종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민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각종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과학적인 손상감시체계를 기반으로 안전증진사업을 관리하는 등 시민에게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여 세종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망과 손상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세종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1. 세종시 안전관리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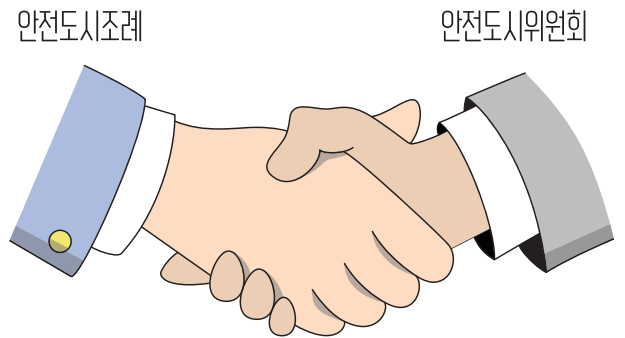
세종시는 세월호, 경주 리조트와 같은 참사는 물론 재해, 재난 속에서 안전한 세종시를 위한다면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 안전증진사업 체계 확립



시민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하여 세종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세종시를 위하여 세종시 안전증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2. 안전도시 조례 제정과 안전도시위원회 운영



안전한 도시 세종시를 위해 14년 10월 안전도시조례를 제정하고 시민과 전문가, 기관 등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도시위원회 운영으로 안전 취약지 현장방문 및 개선 등을 통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4. 세종시의 안전싱크탱크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는 세종시의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 안전연구과제 수행과 손상감시분석, 안전증진 세미나 개최 등 2017년부터 세종시의 안전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5. 안전 역량을 갖춘 국제안전도시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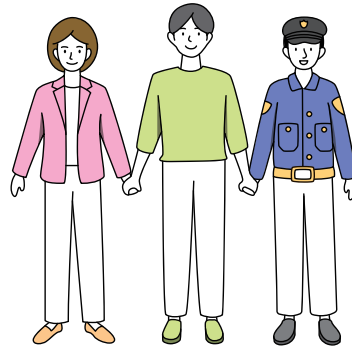
세종시는 출범 이후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안전도시 세종을 핵심시책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8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7. 세종에서 열리는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22년 10월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세계 및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는 각국의 참가자 간 만남을 통해 안전한 세상을 위한 비전과 지식, 전문성을 공유하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세종시는 노력해 나아갑니다.

6. 내가 직접 나서는 안전취약 개선 시스템 구축



세종엔과 연계한 시민안전지도 앱을 구축하여 지역의 안전에 힘쓰는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마을안전공동체와 함께 안전취약점을 찾고 해결하여 지역의 안전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갑니다.

8. 안전을 위한 두번째 도약 국제안전도시 재인증



세종시의 안전 개선효과,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국제안전도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재공인을 통해 안전 도시로서의 기반을 견고히 다진다면, 안전도시로의 도약을 도모하는 세종시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세종 시민과 함께 만듭니다!

일반 시민, 언론인, 민간전문가, 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는 안전도시위원회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취약지를 꼼꼼히 개선하고, 사람이 먼저인 안전 도시 세종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란?

2014년 10월에 구성하여 현재 제4기 활동 중

시민중심의 안전도시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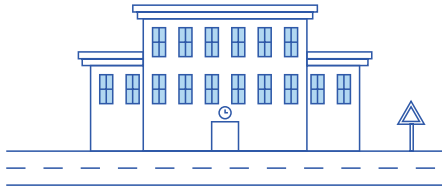
시민이 직접 안전정책을 제안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안전도시위원회 운영

매월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취약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수행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도시사업의 정책심의 및 조정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 10월 30일 발족하였으며, 시민, 유관기관, 안전전문가, 언론인,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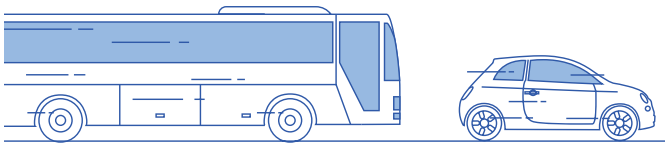
분야별 개선

1.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



나성초, 으뜸초, 소담초, 가덕초 등 학생 통학로 안전환경 개선

2. 도로 교통 안전 개선



연서면 월하오거리, 소정면 대곡터널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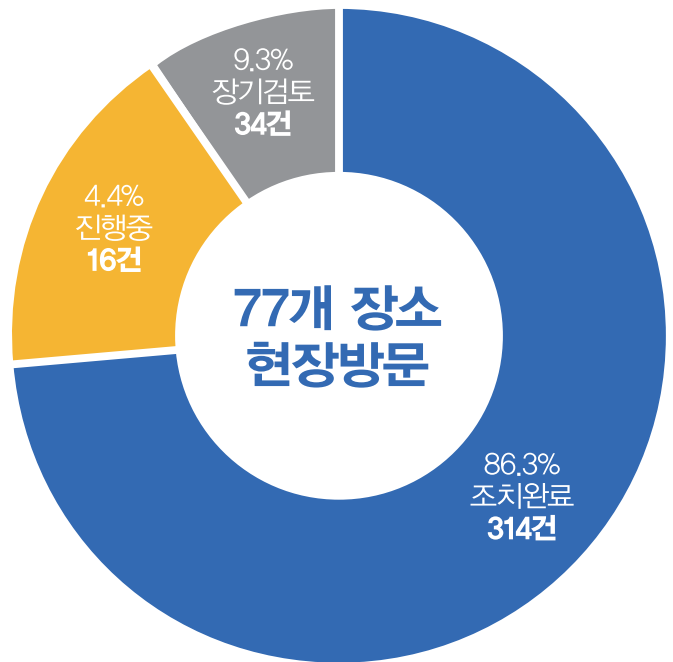
3. 공원 및 자전거 도로 등 생활 안전 확보 등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세종중앙공원 도시전망대, 보람동 어린이 공원 등 생활 안전 개선

안전도시위원회 운영

안전도시위원회는 현재까지('22년 8월 기준) 77개 장소를 방문하여 총 364건에 개선방안의 관련 부서 및 기관에 권고하였고, 그 중 314건을 조치하여 안전취약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 364건 개선사항 도출('22년 8월 기준)

세종시 안전증진사업과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세종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도시안전연구센터와 함께 각종 안전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시민안전 의식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종시는 5개 안전 분야별 총 100여개의 안전증진사업을 관리하여 손상 예방과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 매진해 왔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는 세종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발굴하는 등 세종시 안전 싱크탱크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사업						
구분	내용					
목적	시민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건설					
분야	(현황) 5개 분야 101개 사업 ('22년 8월 기준)					
	세부 분야	자살예방	교통안전	폭력범죄예방	아동청소년노인	재난재해
	분야별 사업 개수	16	20	21	22	22
	대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정신건강증진 집단프로그램운영 생명사랑존(zone)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문화 도시 조성 교통안전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취약지역 CCTV설치 자율방범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예경보구축 및 종합대책 수립운영 방재시설 안전관리
관리	안전증진사업 추진실적 현행화 및 추진상황 점검					
	분기별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구분	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는 세종시의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2017년부터 세종시 안전싱크탱크 역할 수행 예방 중심 체계적 안전연구과제 수행과 손상감시분석, 안전 증진 세미나 개최 중 안전 관련 각종 사업 추진
주요 내용	<p>도시안전 연구과제 수행</p> <p>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수립</p>
	<p>손상감시 실태분석</p> <p>세종시 사망자, 부상자, 연령별 사고 원인 및 현황, 발생시간 및 지역 등 자료를 기반으로 특성과 현황을 분석</p>
	<p>국제안전도시 연차보고서 제작</p> <p>매년 안전증진사업 추진실적 및 국·내외 안전도시 교류협력 실적 등과 손상사망을 분석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 제작</p>
	<p>안전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제작 및 발간</p> <p>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를 위한 인포그래픽(info-graphic)을 활용한 알기 쉬운 안전정보 제공</p>
	<p>도시안전 세미나 개최</p> <p>안전 관련 현안 중심으로 주제 선정을 통한 예방 및 진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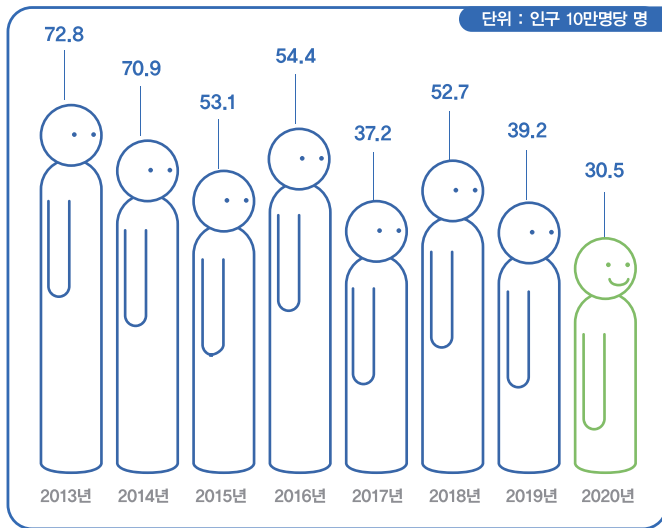
세종시 국제안전도시 인증 이후 변화상

전세계적으로 6초마다 한 명씩 예상하지 못한 부상으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매년 5백만 명 이상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와 같은 교통과 손실은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손상 관리로 안전통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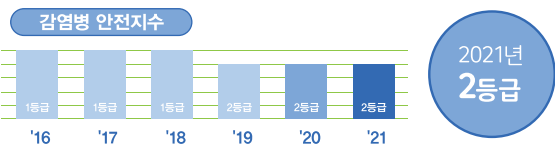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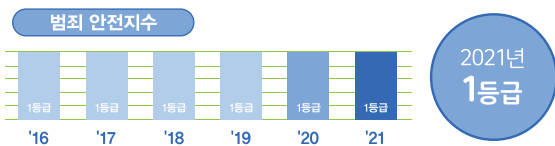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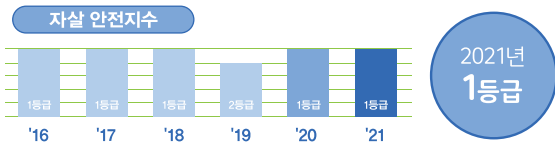
손상 사망률 감소 국제안전도시 공인 준비 (2014년)부터 지속 감소
2020년 손상사망률 전국 시·도 (평균 51.5명) 대비 최저 수치

72.8명 2013 70.9명 2014 | 공인 준비 52.7명 2018 | 최초 공인 30.5명 2020



지역안전지수 개선

-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범죄, 자살 분야 1등급, 감염병 분야 2등급을 확보하며 특, 광역시 중 우수한 성적 달성
- 다소 낮은 등급을 받은 화재와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철저한 대책 마련 및 개선사항 적용 중



시민주도의 안전증진사업 추진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조사항목 중 광역시도 별로 결과를 나타낸 '국민안전 체감도' 부분에서 세종시가 대부분 1위 차지



분야별 안전 체감도		
자연재난	1	3.09 (2.92)
화재	1	3.07 (2.94)
교통사고	1	2.82 (2.70)
붕괴사고	1	3.25 (3.10)
감염병	1	2.81 (2.57)
산업재해	1	2.89 (2.77)
안보위협	5	3.03 (2.92)
범죄	1	3.10 (2.88)
화학물질 누출사고	1	3.20 (2.98)
원전사고	1	3.23 (3.05)
환경오염	1	2.71 (2.51)
사이버 위협	1	2.56 (2.37)
성폭력	1	2.68 (2.45)

국제안전도시 세종시 향후 계획

- 정부 안전정책인 지자체 안전자치 실현
- 안전사고의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 세종 시민의 내적 요구도 증가
- 도시 발전과 도약을 위한 외적 요구도 증가



세종시 국제안전도시 재인증 추진

공인방법 |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 최초 승인 후 5년마다 재공인

서면평가 | 재공인신청서를 토대로 6개 공인기준 적합여부 평가

현지실사 | 안전관련 8개 분야 별 PT 발표

- 총괄보고
- 손상감시체계
- 교통안전
- 폭력 및 범죄예방
- 자살예방
- 낙상예방
- 취약계층 안전사업
- 우수 모범사례

우리나라 국제안전도시 현황 2022.08 기준

광역 | 4개 시도(제주, 부산, 광주, 세종)
기초 | 20개 중 15개(시·군·구) + 5개(시·군 준비중)





INTERVIEW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이인환 과장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안전한 터전을 만들어 가는 국제안전도시. 세종시는 2018년 광역시도 중 네번째로 국제안전도시공인을 받았는데요. 어느덧 국제안전도시 인증 5년차를 맞았습니다. 2023년,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이야기를 세종시 시민안전실의 이인환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윤숙 작가(이하 이윤숙) | 처음 뵙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인환(이하 이 과장) | 안녕하세요? 세종시청에서 안전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인환입니다. 저는 '93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니까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부서인 안전정책과는 2021년 1월에 발령 받아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작가 | 세종시 안전정책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이 과장 | 안전정책과는 안전기획팀, 생활안전팀, 안전감찰팀, 민생사법경찰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종시 안전정책에 대한 기획 및 조정과 각종 안전증진사업에 대한 총괄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시민안전교실,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운영 등으로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위험요인과 안전관리체계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 안전감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등 민생 4개 분야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0월에 개최될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와 내년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국제안전도시 재인증 준비 업무에 각별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 | 세종시가 2018년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 어느 지역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과장 |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2014년부터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고, 세종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14년)을 시작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운영(14년), 101개 안전증진사업 발굴·관리(15년),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설립(17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년 광역시도 네 번째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획득하였고 그 결과, 질병의 사고로 인한 손상사망률이 2014년 사업 착수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최근에는 전국 광역시도 대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 국민 안전의식조사 결과 국민안전 체감도 부분에서 우리 시가 대부분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작가 | 시민들을 위한 안전 관련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시민안전교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 과장 | 저희 안전정책과를 비롯해서 세종시 내 부서 및 기관에서 각종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안전교실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주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신청 기관에 안전분야 전문 강사분들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5회(22.7월 말 기준)를 마쳤고 연말까지 300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 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후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대하여 시민 안전에 보다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 작가 | 세종시에서는 안전도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고통이나 불편사항들을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장 | 안전도시위원회는 시민, 전문가 20여명이 함께 안전 취약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조치를 권고합니다. 2014년 발족 이래 매월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83회 개최하여 77개소(22.8월 말 기준)의 현장을 방문하고 364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권고하였습니다. 개선사항의 8~90%가 해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018년 국제안전도시 인증 심사 시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을 해결하는 우수모범사업으로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작가 | 해마다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세종시의 지역안전지수가 꽤 높을 것 같아요.

이 과장 | 지역안전지수는 '15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 안전 수준을 6개 분야별로 등급화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년 간 6개 분야 중 특히, 범죄·자살·감염병 등 3개 분야에서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발표한 '21년 지역안전지수에서는 1등급인 최상위 등급을 차지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화재 그리고 생활안전분야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분기별로 운영하면서 각종 안전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표 향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작가 |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 과장 |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인만큼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점차 복잡하고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시민 의식이 서로 맞물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을 되돌아 볼 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각계각층의 상호 협력 기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통해 안전 역량이 배가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가 | 2018년 인증을 받은 국제안전도시는 내년에 재인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 과장 |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6개 인증기준을 토대로 5년을 주기로 평가를 통해 재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서면평가 및 현지 실사를 총 2번의 심사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예비심사는 국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에서 2차 본 심사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올해 4월 국제안전도시 재인증 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 부서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받아 재인증 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재인증 신청서를 국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에 제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1차 실사를 내년 3월에는 2차 본 실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차질없이 준비하여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 | 앞서 6개 인증기준을 토대로 평가를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준은 어떤 건가요?

이 과장 | 국제안전도시의 재인증 기준은 거버넌스, 손상감시체계, 포괄성, 취약계층, 평가, 네트워킹으로 6개 인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지속 가능한 손상 예방 뿐 아니라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손상예방사업을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확산을 위한 감시 체계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성별, 연령, 환경 등을 포함하는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 프로젝트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약집단과 고위험 계층,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도시 사업의 진행과정과 그에 대한 효과, 개선 상황을 검증 할 수 있는 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안전도시 네트워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야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작가 |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은 곳이 전국에 22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타 지역과 세종시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얼까요?

이 과장 |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된 타 시도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안전에 대한 평가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2014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사업에 착수하던 당시, 손상 사망률이 전국의 비율보다 꽤 높았습니다.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 손상사망률(30.5명)은 전국 시도 평균(51.5명)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21년) 중 범죄, 자살, 감염병 세 개 분야도 최상위 등급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전 지표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가 | 세종시 보건소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이나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이 과장 |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 주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협력하며 일궈가야 합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 정책 실현에 있어 읍·면 지역과 신도시, 두 곳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만 재인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작가 |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과장 | 안전정책과를 비롯한 부서 및 기관에서는 세종시 안전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세종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10.13일부터 14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5차 세계 및 제10차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에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안전체험축제와도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분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하고 볼거리가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 이윤숙 (프리랜서 작가) 사진 제공 | 대전세종연구원



INTERVIEW |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조직위원회 조준필 위원장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를 아시나요?

198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는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된 도시에서 격년마다 열리는데요. 2020년 세종시에서 개최 예정이던 아시아 연차대회는 코로나19로 미뤄오다 오는 10월, 세계대회와 함께 동시에 개최됩니다.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조직위원회 조준필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윤숙 작가(이하 이) | 처음 뵙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준필(이하 조) |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준필이라고 합니다. 1994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교 응급의학과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2004년 9월,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어 지역사회 안전 증진 연구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 응급의학과에 계신데 어떻게 국제안전도시 위원장님을 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조 | 평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 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고나 이벤트가 생기면 응급실을 주로 찾게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사고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응급실은 다친 사람들이 치료만 받는 곳이 아니라 다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도시 헌장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나 한국을 찾는 관광객 모두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힘을 모으고 싶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 연차대회 이야기에 앞서 국제안전도시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조 | 국제안전도시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차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에서 채택된 “모든 인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All human beings have equal rights to health and safety)”는 안전도시 헌장(Manifesto for Safe Communities)을 토대로 탄생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지역사회 내의 각계각층의 능동적인 참여로 모든 손상 분야 및 모든 인구집단, 모든 환경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주도의 안전증진사업을 이르는 말이며,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여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가 10월에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 | 아시아 연차대회는 당초 2020년 10월에 개최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몰아닥친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연기되다가 세계 연차대회와 함께 올해 10월 13일부터 14까지 이틀간, 세종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세계대회와 아시아대회를 동시에 개최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2022년 7월말 기준, 전 세계 33개국 435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 도시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차대회는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된 각국의 도시들이 안전문화를 공유하고 사고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교류, 학술대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가 세종에서 열리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조 | 세종시는 2018년 1월, 세계에서 393번째, 국내에서는 14번째로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종시는 계획된 도시로 도시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안전과 관련한 여러 시민단체 활동이나 분과위원회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 시민들 역시 이 사업에 대한 지지도와 참여율이 높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안전도시 회원사들과 한 자리에 모여 세종시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에 책임이 있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시아 및 세계 연차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조 | 이번 연차대회는 '시민참여로 지속 가능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 등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의장을 비롯한 각국의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이 참여하는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고요, 일반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 참여 토크콘서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 | 이번 연차대회의 주제가 '시민참여로 지속가능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 |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북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안전관련 사업들에 참여하고 정책 제안도 합니다. 안전도시 조성은 지자체의 정책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민들 스스로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물들을 제거하고, 또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생활 터전인데요, 세종시는 타 지자체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위원회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연차대회에 우수 사례들을 발표하고 다른 도시와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 |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가 세종에서 개최된 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조 | 세종시는 도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곳으로 자랑거리가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코로나19로 그럴 수 없어 아쉽습니다. 비록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겠지만, 안전도시 사업의 수행 역량을 국내외 다른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초 강연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안전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세종시의 지역사회 안전증진 역량을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 시민들의 안전증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향후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사업에 시민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 연차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종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조 | 세종시가 그동안 국제안전도시 관련 사업들을 여러 기관 단체를 이차 안전도시위원회,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상당히 모범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까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연차대회를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또, 세종시가 다른 안전도시와 비교하면 잘 하는 점도 물론 많겠지만, 이번 기회에 국내외 안전도시 사례들을 듣고 배우면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조 |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로의 인증 획득은 어떤 안전 기준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6개의 인증 기준에 따라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안전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걸 말합니다. 그 역량을 계속 발휘해서 안전한 상태가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모든 안전도시들 역시 안전도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어떻게 진행될까요? | SAFETY TIP

세종시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만나다

국제안전도시 수행 30여년간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학술대회가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됩니다. 안전 행정담당자, 안전증진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및 안전관련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물론, 공인된 안전도시 세종시에서 살아가는 시민 여러분들을 제25차 세계 및 제10차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에 초대합니다.

전체일정						
진행시간	제1일차 / 10.13		제2일차 / 10.14		대회기간 시민참여행사	
08:30 - 10:00	등록					
10:00 - 12:00	개회식 동시통역		세션3 동시통역	특별 연계 재난안전협력 세미나		세션4 동시통역
12:00 - 13:30	공식 오찬		점심			
13:30 - 15:00	세션1 동시통역	특별 연계 세종 안전연구네트워크 발족식	시민안전 토크콘서트	세션5 4개 분과별 워크숍		
15:00 - 15:30	휴식		휴식			
15:30 - 17:00	세션2 동시통역		폐회 세션 동시통역			
- 17:30						

1일차 일정		
진행시간	제1일차 / 10.13	내용
10:00 - 12:00	개회식 동시통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영상 상영 환영사 및 축사
12:00 - 13:30	공식 오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조 연설 Dale Hanson, 조준필 기념 세레모니, 기념 촬영 <small>*사회자 영어 MC포함</small>
13:30 - 15:00	학술대회	지속 가능한 한전 도시를 위한 국제사회와 정부의 역할 좌장 : 배정미, Lu Pai 발표자 : Guldbrand Skfonberg, Lu Pai, 강성기 토론 : 이 준, 이은석
15:30 - 17:00		자살예방에서 지역사회의 역할 좌장 : 황태연 발표자 : Yoshihide Sorimachi, 백중우 토론 : 한희선, 세종시 광역정신건강복지 부센터장

2일차 일정		
진행시간	제1일차 / 10.13	내용
10:00 - 12:00	세션3 동시통역	취약 계층 안전 형평성 보장을 위한 중재 방안 좌장 : 백경원, Yoko Shiraishi 발표자 : Dale Hanson, Yoko Shiraishi, 김수진 토론 : 안용준, 박찬임
10:00 - 12:00	학술대회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 수준 향상 좌장 : 배정미 발표자 : 조성운, 김영호, 임선호 토론 : 김현옥, 세종시 시민안전실장
13:30 - 15:00		원격 화상 워크숍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등 영어 좌장 : 박남수, 안용준
13:30 - 15:00	시민참여	안전 토크 콘서트 내용 : 모두가 안전한 세종, 함께 만들어요! 좌장 : 이형복 발표자 : 라정일, 이우진 토론 : 신진동, 조성
15:30 - 17:30	폐회세션 동시통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분과 워크숍 결과 공유 폐회식 <small>*사회자 영어 MC포함</small>

SESSION 1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위한 국제사회와 정부의 역할

일시 | 10월 13일(목), 13:30 - 15:00
주제 |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위한 국제사회와 정부의 역할
언어 | 동시통역
좌장 | 배정어, Lu Pai
발표자 | Guldvrang Skfonberg, Lu Pai, 강성기
토론 | 이준, 이은석

SESSION 4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 수준 향상

일시 | 10월 14일(금), 10:00 - 12:00
주제 |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 수준 향상
언어 | 한국어
좌장 | 배정어
발표자 | 조성윤, 김영호, 임선호
토론 | 김현옥, 세종시 시민안전실장

SESSION 2 자살예방에서 지역사회의 역할

일시 | 10월 13일(목), 15:30 - 17:00
주제 | 자살예방에서 지역사회의 역할
언어 | 동시통역
좌장 | 황태연
발표자 | Yoshihide Sorimachi, 백중우
토론 | 한희선, 세종시 광역정신건강복지 부센터장

SESSION 5 4개 분과별 워크숍

일시 | 10월 14일(금), 13:30 - 15:00
주제 |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위한 국제사회와 정부의 역할
좌장 | 박남수, 안용준, Yoko Shiraishi, Lu Pai, Dale Hanson

SESSION 3 취약 계층 안전 형평성 보장을 위한 중재 방안

일시 | 10월 14일(금), 10:00 - 12:00
주제 | 취약 계층 안전 형평성 보장을 위한 중재 방안
언어 | 동시통역
좌장 | 백경원, Yoko Shiraishi
발표자 | Dale Hanson, Yoko Shiraishi, 김수진
토론 | 안용준, 박찬임

SESSION 6 시민안전 토크콘서트

일시 | 10월 14일(금), 13:30 - 15:00
주제 | 모두가 안전한 세종, 함께 만들어요!
내용 | 강연 및 온·오프라인 Q&A
좌장 | 이형복





제25차 세계 및 제10차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The 25th International and 10th Asian Safe Community Conference

Community participation in making a Safe Community sustainable
시민참여로 지속 가능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2022.10.13. (목)~14. (금) |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 및 온라인 하이브리드 진행

일시	행사명	주요내용	
1일자 (10.13.목)	10:00~12:00	개회식	- 개회사 및 축사 - 기조 연설 - 국내 국제안전도시 공동 실천선언
	12:00~13:30	공식 오찬	- 친선 교류의 장 마련
	13:30~15:00	학술대회	세션 1 -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위한 국제사회와 정부의 역할
	15:30~17:00		세션 2 - 자살예방에서 지역사회의 역할
	13:30~15:00	(특별연계) 세종 안전연구네트워크 발족식	- 국제연구기관(안전분야)과 네트워크 구축 (주최: 세종특별자치시 / 주관: 대안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2일자 (10.14.금)	10:00~12:00	세션 3	- 취약 계층 안전 형평성 보장을 위한 중재 방안
	10:00~12:00	세션 4	-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 수준 향상
	10:00~12:00	(특별연계) 재난안전협력세미나	- 스마트기술로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주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형재해위 / 주관: 대안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13:30~15:00	세션 5	- 4개 분과 주제별 워크숍!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13:30~15:00	시민안전토크 콘서트	- 모두가 안전한 세종, 함께 만들어요!
	15:30~17:30	폐회세션	- 4개 분과 주제별 워크숍 결과 공유 - 폐회식

주최·주관 |  세종특별자치시 후원 |  행정안전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유증상자* 예방수칙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지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s://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발행일 2022년 10월

문의 안전정책과
044-300-3613~4

기획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디자인·제작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OSAFE)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매거진의 발간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QR code

홈페이지(sejong.go.kr)와 QR 코드로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